# 극지해소식

No.155
30 Nov
www.kmi.re.kr

**발행인** 조정희 원장 **책임**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김주형 전문연구원, 김지영 전문연구원, 박예나 전문연구원
엄단비 전문연구원, 유지원 연구원, 정다현 연구원, 한다희 연구원
**담당자** **김엄지** 051)797-4776 (umjikim@kmi.re.k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북극 소식

###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이사회** | PAME 신임의장, '북극해 해운전략계획 개정' ····· 2

###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 석유 보호 지역 규정 폐지 ····· 4
**스웨덴** | 스웨덴, 캐나다와 전투기 생산 파트너십 모색 ····· 6
**노르웨이** | 환경단체, 북극 해운의 탈 탄소화 주도 촉구 ····· 8
**핀란드** | 러시아 국경선에 침략 저지 '자연 방벽' 추진 ····· 9
**아이슬란드** | 북극지도자, '극북 하이브리드 전쟁 위험' 경고 ····· 10
**덴마크** | 북유럽이사회, 북극 해운 배출 규제 조치 채택 ····· 11

###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캐나다** | 캐·미국·핀란드, 쇄빙선 공동건조 의향서 체결 ····· 12
**러시아** | 극동·북극 지역에 산업·기술·비즈니스 파크 건설 ····· 14

###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 사사카와 재단, 그린란드와 '북극 협력각서' 체결 ····· 19
**독일** | 독일 해군, 러시아 잠수함 활동 감시 전투기 배치 ····· 21
**이탈리아** | 1차 국가 북극 회의 개최, 정부 북극정책 논의 ····· 22

## 남극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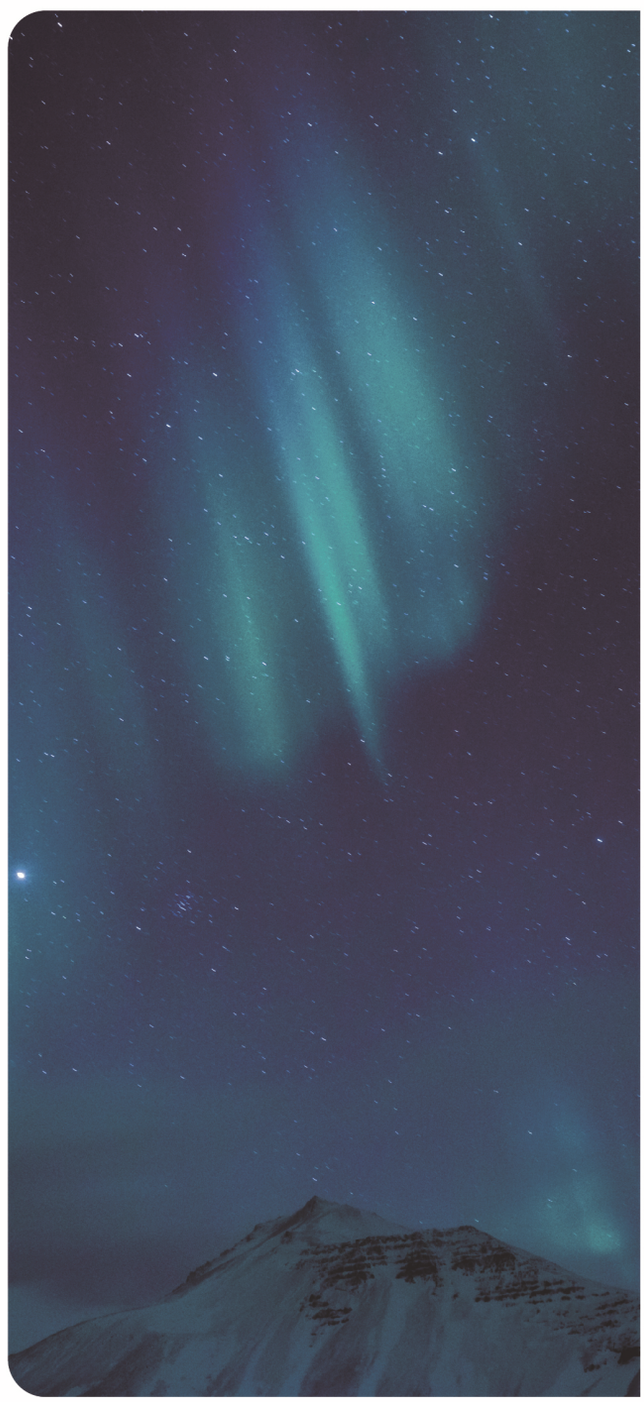
중국, 제42차 남극 탐사 시작 … 빙저호 심층 시추 최초 시도 ····· 23

## 극지의 창(窓)

북극권 국가 – 옵서버 국가 : 협력과 경쟁, 그 사이 어딘가에서 ····· 25
Arctic Circle Assembly 후기 – 모델 밖에서 북극을 만나다 ····· 30

## 북극과 사람

변화하는 시대, 북극 원주민 여성의 변화 ····· 33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 PAME 신임 의장, '북극 해운전략계획 개정' (2025.10.24.)

〈그림〉 북극이사회 PAME 신임 의장, 아비다트 마고메도바(Abidat Magomedova)




자료: https://arctic-council.org/news/introducing-the-new-sdwg-chair-its-necessary-to-protect-arctic-cultures-languages-and-traditions/

11월 6일, 북극이사회는 산하 북극해양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이하 PAME)의 신임 의장으로 아비다트 마고메도바(Abidat Magomedova)를 선출했다. 마고메도바 의장의 임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그는 북극이사회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PAME이 집중해야 할 핵심 분야로 지속 가능한 해운(Sustainable Shipping)과 해양 쓰레기(Marine Litter) 예방을 강조했다.

마고메도바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2025년 이후를 대비한 '북극해 해운 전략계획(Arctic Marine Strategic Plan)' 의 개정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이 계획은 PAME 활동을 이끄는 핵심 문서로, 개정 과정에서 북극이사회 전반의 우선순위 설정, 분야 간 협력 강화, 해양 관련 활동의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PAME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PAME의 대외 홍보 활동과 성과물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글 한다희 연구원
dhhan@kmi.re.kr

출처1: https://arctic-council.org/news/interview-with-the-new-pame-chair-abidat-magomedova/

출처2: https://arctic-council.org/news/introducing-the-new-sdwg-chair-its-necessary-to-protect-arctic-cultures-languages-and-traditions/

##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앞으로 2년 동안 주목해야 할 PAM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마고메도바 의장은 북극에서 해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해운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함께, 해양 쓰레기 문제 역시 북극 생태계와 해양 생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고메도바 의장은 10년 이상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국제 환경협력 분야에 종사한 북극 협력 및 환경보호 분야 전문가로, 주로 북극 국가들과의 협력을 담당해왔다. 과거 그는 러시아 대표단 일원으로 북극동식물보전(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활동에 참여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기간 동안 북극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개발워킹그룹(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SDWG) 의장을 역임하였다.

PAME은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 중 하나로, 육상 및 해상 기반 활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북극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PAME 활동에는 비상상황이 아닌 오염방지 조치, 공동 전략계획 수립, 프로그램·평가·지침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북극 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협정과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 석유 보호지역 규정 폐지 (2025.11.14.)

〈그림〉 알래스카 국립 석유 보호구역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철새, 순록 및 기타 야생동물이 주로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석유 매장 지역을 보호하는 연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무부는 최종 규정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작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규정은 야생동물, 생계 또는 기타 가치에 대해 특별하게 지정된 알래스카 국가 석유 보유지역(National Petroleum Reserve-Alaska)에서 향후 임대 및 산업 개발을 제한해왔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서명한 알래스카 관련 행정명령과 일치한다. 이 명령은 주 정치 지도자들이 알래스카의 석유 및 가스를 포함한 광대한 에너지 자원 개발 능력을 제한했다고 불평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그 버검(Doug Burgum) 내무장관은 6월 바이든 정부의 규정이 석유 매장지에 대한 임대 프로그램 의무와 상충되며 “생산보다 금지를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규정은 내무부가 새로운 특별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호를 강화할지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정책 당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영구동토층 융해와 식물 및 야생동물 이동로의 변화 같은 북극의 급격한 변화를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이 대규모 윌로(Willow) 석유 프로젝트를 포함한 기존 임대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 개발에 대한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지 내에서 석유 및 가스가 어디에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개발 지지자들은 석유 매장지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시추를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11/14/trump-administration-repealing-protections-for-key-swaths-of-alaska-petroleum-reserve/

##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위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연방법이 환경적인 고려 사항과 보호를 포함하는 보유지역 관리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크기의 석유 매장지는 미국 해군의 비상 석유 공급처로 한 세기 전에 지정됐다. 그 다음 1970년대 이후 내무부가 관할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보유지 북동부 지역의 윌로를 승인할 당시 적지 않은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했음에도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다.

매장지가 임대된 가장 최근 시점은 2019년이었다. 올해 초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10년 동안 매장지 내에서 최소 5회의 판매를 요구한다.

알래스카 지역에서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노스 슬로프(North Slope) 지역 지도자들이 속해있는 옹호 단체인 북극 이누피아트의 목소리(Voice of the Arctic Iñupiat)는 책임 있는 개발이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단체 회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자신들의 의견이 들리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요사이아 패트코탁(Josiah Patkotak) 노스 슬로프 자치구 시장은 성명에서 이 규정 폐지에 대해 “지역 지식과 리더십을 존중하는 연방 절차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가들은 행정부의 결정을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지구정의(Earthjustice) 소속의 에릭 그래프(Erik Grafe) 변호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분별한 화석연료 의제로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또,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서부 북극의 대체 불가능한 토지와 야생동물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스웨덴

## 스웨덴, 캐나다와 전투기 생산 파트너십 모색 (2025.11.19.)

스웨덴 국방장관은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요 군사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캐나다와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폴 욘손(Pål Jonson) 스웨덴 국방장관은 19일 데이비드 맥긴티(David McGuinty) 캐나다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캐나다의 최고 수준 항공 산업과 항공우주 전문성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브(Saab)의 그리펜(Gripen)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생산 확대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말했다. 또한, 욘손 장관은 “우리 자체 산업 기반이 상당히 압박받고 있다. 우리는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고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사브와 몬트리올 소재 봄바르디에(Bombardier)는 이미 글로벌아이(GlobalEye) 조기 경보 감시 및 통제 항공기 관련 파트너십을 진행 중이다. 스웨덴의 제한된 역량과 노동력을 고려할 때 스웨덴 외부에서 그리펜 전투기를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브의 미카엘 요한손(Micael Johansson) 대표는 우크라이나와의 잠재적인 계약을 고려하여 그리펜 전투기 생산 확대를 위한 가능한 장소 중 하나로 캐나다를 언급했다고 금융 전문지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 회사는 스웨덴에 주요 전투기 생산 시설을 두고 있지만 브라질에도 최종 조립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발언은 캐나다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에 약간 다른 측면을 제시한다. 회사는 그리펜에 대한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에서 최대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자유당 정부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이 제조하는 88대의 F-35 전체 주문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초기 16대의 스텔스 전투기제작 주문은 이뤄졌으나 나머지 기종의 경우 다른 전투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웨덴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월 말 최대 150대의 그리펜-E(최신 버전)를 전쟁 피해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프랑스 라팔(Rafale) 전투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향서가 서명됐다. 두 경우 모두 확정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그리펜, 라팔 전투기와 기증받은 F-16을 포함해 약 250대의 전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https://www.cbc.ca/news/politics/ukraine-saab-gripen-canada-sweden-9.6984854

## 북극권 국가 정책

스웨덴

투기로 혼합 함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부가 전투기 구입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 및 물류, 재정적인 장애물이 있다. 키이우 정부는 현재 현금 부족상태에 직면해 있어 외부 지원 없이 전투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하다.

욘손 장관은 이 문제는 캐나다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스웨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 캐나다에 훌륭한 항공전자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협력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칼 16세 구스타프(Carl XVI Gustaf) 국왕과 실비아(Silvia) 왕비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를 만났고, 두 나라는 북극을 사이에 둔 이웃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으로서 관계 심화와 협력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서명했다.

# 북극권 국가 정책

노르웨이

## 환경단체, 북극 해운 탈탄소화 주도 촉구 (2025.11.20.)

환경단체들이 노르웨이에 대해 내년 2월에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의를 계기로 북극 해운의 탈 탄소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르웨이 환경단체 벨로나(Bellona)와 북극 보호 NGO 연합체인 클린 아크틱 얼라이언스(Clean Arctic Alliance)는 20일(현지시간) 2026년 2월 런던에서 열릴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북극 지역 선박 연료 사용 규정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노르웨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북유럽 각료이사회가 북유럽 국가들에게 IMO와 국제해양오염방지 협약(MARPOL 부속서 VI)에서 '극지 연료(polar fuels)' 인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나왔다.

벨로나 해운 선임 고문이자 클린 아크틱 얼라이언스 회원인 시구르 엔게는 "IMO가 10년 이상 과학적 분석과 논의를 해왔지만, 북극 해운의 블랙 카본 배출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기후변화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북극 지역에서 청정 연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극지 해역에서 다수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어 이 문제에서 공동 리더십을 보여줄 독특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린 아크틱 얼라이언스의 시안 프라이어 수석 고문도 "블랙 카본은 IMO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라며 "더 이상 지체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논의 기회는 2026년 2월 열릴 IMO 오염방지·대응 소위원회(PPR 13)로, 극지 연료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12월 5일이다.

프라이어 고문은 "북극 지역 해운에서 블랙 카본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칙 마련을 위해 극지 연료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북극 국가들이 주도하는 구체적인 극지 연료 제안이 제출돼야 북극 블랙 카본 배출을 신속히 줄이고, 장기적인 탈탄소화 노력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북극에서 극지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게 고문은 "노르웨이는 과거 해운 대기 배출 저감 조치를 선도해 노르웨이 피오르 지역과 2026년부터 시행될 노르웨이해 배출통제구역을 포함한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PPR 13 제안은 북극 전역의 블랙 카본 배출로 인한 기후 영향을 줄이는 중심에 노르웨이를 세우고, 전 세계 해운업계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safety4sea.com/norway-urged-to-drive-arctic-shipping-decarbonization/

# 북극권 국가 정책

핀란드

## 러시아 국경선에 침략 저지 '자연 방벽' 구축 추진 (2025.10.31.)

〈사진〉핀란드 북동부 카퓔라(Kapyla) 인근의 이탄 습지의 모습



자료: 올리비에 모랭/ 게티 이미지

핀란드가 러시아와 연결된 국경선에 자연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습지와 이탄지, 손상된 숲을 복원해 군사적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자연 방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도하는 이 작업반은 내년 봄까지 동부 핀란드 국유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이 무인기 확보와 무기 비축에 나서는 가운데, 핀란드는 자연을 국방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번 계획은 습기가 많은 이탄지나 쓰러진 나무와 황폐한 숲을 기계화 병력의 침투를 막는 자연 장애물로 활용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동시에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목표다. 사리 물탈라 핀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연환경은 사회 전체의 회복력과 안전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탈라 장관은 이번 전략이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규정(Nature Restoration Regulation)과도 연계된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이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안티 핵카넨 국방부 장관은 "핀란드는 오랫동안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안보 전략을 구사해왔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목표와 안보를 결합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도는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생태 회복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북유럽식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www.rcinet.ca/en/2025/10/31/finland-turns-to-nature-as-new-line-of-defence-against-russia

## 북극권 국가 정책

 아이슬란드

### 북극 지도자, '극북 하이브리드 전쟁 위험' 경고 (2025.11.16.)

최근 북극 지도자들이 러시아 등 국가들에 의한 해저 인터넷 케이블 파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이 발트해에서 극북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양국 간 새로운 데이터 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이며, 페로제도는 자국 군도를 경유하도록 경로를 추가해 공격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페로제도 총리가 16일 밝혔다. 악셀 요하네센 페로제도 총리는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라면 취약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통신 케이블만 가지고 있으며, 만약 둘 다 동시에 공격받는다면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북극은 외딴 위치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 발트해 인터넷 및 전력 케이블 사보타주, 공역 침해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 일부 관측통들은 실제로 감지되지 않은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야 켐니츠 덴마크 의회 그린란드 출신 국회의원은 "그린란드는 캐나다와 아이슬란드에서 오는 케이블 두 개만 가지고 있다"면서 "케이블 하나가 끊기면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공격 감지 능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와 셰틀랜드, 오크니, 페로제도를 잇는 케이블은 2022년 1회, 2025년 2회 손상됐다. 노르웨이령인 스발바르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2022년 1월 손상됐는데, 노르웨이 공영방송은 러시아 어선이 이 케이블 매설 해역을 140회 이상 통과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덴마크는 지난달 F-35 전투기 도입과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해 87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예산에는 그린란드와의 새 데이터 케이블 구축사업도 포함된다. 요하네센 총리는 페로제도 정부가 작년 코펜하겐과의 회담에서 제3의 케이블 설치를 제안했다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극 국가들은 위성 인터넷 백업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 시스템은 전체 통신량의 극히 일부만 커버할 수 있다. 켐니츠는 그린란드의 경우 약 1%만 커버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모두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도 외부로부터의 단절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배운 것을 서로 나눈다"고 강조했다.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www.ft.com/content/f4aec448-abf5-47d1-abca-6829736bfcb1

북극권
국가 정책

덴마크

## 북유럽이사회, 북극 해운 배출 규제 조치 채택 (2025.11.07)

2025년 북유럽이사회 본회의에서 국경과 부문을 넘는 협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권고안이 채택됐다. 북유럽이사회는 7일 공공 서비스 협력 확대, 이동의 자유 저해 장애물 제거를 위한 새로운 전략, 노인 복지 및 북극 환경 보호 관련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북유럽 각국 정부나 북유럽 각료이사회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된다. 이번 회기에서 북유럽이사회는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그린란드, 페로제도, 올란드에 의장단 상임 의석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의장단은 회기 사이 기간 북유럽이사회의 최고 정치 기구다. 또한 "2026~2030 북유럽 지역 내 이동의 자유" 전략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북유럽 전역에서 거주하고 일할 때 존재하는 행정적 장애물 제거를 가속화하는 조치다.

북유럽 공영방송 간 협력 강화 권고안도 통과됐다. 각국 공영방송사들이 다른 국가 콘텐츠를 더 잘 조명하고, 북유럽 언어 자막을 활용해 상호 언어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과 문화 위원회는 사미 아동의 언어권 보호를 위해 사미어 교육자료 제작 확대와 사미 교사 양성 강화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안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정부에 전달된다.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 돌봄 공동 전략도 채택됐다. 돌봄의 질, 노동력 이동성, 디지털 포용, 노인 참여 등이 중점 과제로 포함됐다.

북유럽이사회는 북극 환경 보호를 위해 극지 연료 사용 규제 권고를 채택했다. 기후 위기는 북극에서 이중 영향을 미친다. 얼음이 녹으면 선박 운항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및 블랙 카본 배출도 증가한다. 블랙 카본이 얼음과 눈 위에 쌓이면 태양광 반사 능력이 저하돼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북유럽이사회 과반은 북유럽 각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극지 연료에 관한 규정을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북유럽 국가들의 북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조치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데 찬성했다.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www.norden.org/en/news/decisions-made-2025-session-nordic-council

#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캐나다

## 캐·미국·핀란드, 쇄빙선 공동 건조 의향서 체결 (2025.11.19.)

캐나다, 미국, 핀란드가 캐나다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무역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쇄빙선을 공동으로 건조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서명된 ICE Pact(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로 알려진 쇄빙선 협력 노력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키어스틴 힐먼(Kirsten Hillman) 주미 캐나다 대사는 18일 워싱턴에서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 사카리 푸이스토(Sakari Puisto) 핀란드 경제부 장관과 함께 산업 협력 강화와 쇄빙선단 증강을 위한 공동 의향서에 서명했다. 힐먼 대사는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우리가 점점 더 위험한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시기에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ICE Pact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얼음으로 덮인 수역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선박 건조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쇄빙선 구매에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10월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위한 4척의 북극 안보 함정(Arctic Security Cutters)을 구매하기 위해 핀란드와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박 설계는 캐나다 조선기업인 시스팬 조선소(Seaspan Shipyards)에서 담담했다. 같은 달 트럼프는 관세를 비판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인용한 온타리오주 정부의 지원 광고를 이유로 오타와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먼대사는 다른 많은 문제에 대해 미국 측 파트너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북극의 안보와 기회는 오랫동안 트럼프의 우선순위였다. 노엠 장관은 화요일 “북극은 세계의 마지막 가장 야생적인 개척지이며 우리의 적대국들이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엠장관은 북극에서 번영하려면 미국에 쇄빙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리쇼어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엠장관은 ICE Pact가 세 국가의 경험과 자원을 통합하여 쇄빙선을 신속하고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11/19/canada-u-s-finland-take-step-forward-on-ice-pact-plan-to-build-icebreakers/

##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캐나다

예산 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6월 텍사스 조선소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캐나다의 샹티에 데이비(Chantier Davie)를 언급했다. 데이비는 퀘벡과 핀란드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전문성과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캐나다, 미국, 핀란드가 북극 문제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쇄빙선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도 북극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해안경비대(Canadian Coast Guard)를 위해 2척의 새로운 극지 쇄빙선을 건조하고 있다. 힐먼대사는 국경 자금 지원 증대와 국방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며 캐나다와 미국이 북미 방위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다.

캐나다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트럼프는 치명적인 펜타닐의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미국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관세는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 자료를 보면, 멕시코 국경에 비해 북쪽 국경에서 압수되는 펜타닐의 양이 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오타와의 안보 강화 노력에 대해 질문을 받은 노엠장관은 캐나다가 진전을 이뤘지만 트럼프의 관세문제를 끝내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우리는 좋은 진전이 있었고 국가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양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 극동 · 북극 지역에 산업·기술·비즈니스 파크 설립 (2025. 10. 22.)

푸틴 태통령은 최근 2030년까지 극동 지역과 러시아 북극 지역(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비즈니스 파크를 최소 10개 이상 조성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국가 기술 우선분야(National Technological Priorities)에 따라 활동하는 중소기업과 그 협력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식 지시문에는 “이전에 내린 지시사항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극동연방관구와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의 육상 구역(land territories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비즈니스 파크를 최소 10개 이상 설립하고, 해당 단지들은 국가 기술 우선분야에 따라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협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지시는 2025년 9월 5일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 결과를 반영한 대통령 명령의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이 명령의 이행 상황 보고서를 2026년 2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보고 책임자는 러시아 연방 정부이며,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총리가 총괄 담당자로 지정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 및 북극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승인했는데, 연방 정부 및 각 연방주 행정기관이 단계별로 2025~2030년까지 이행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시는 산업, 주택, 기술, 물류, 금융, 의료, 법제, 문화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데이터·기술 및 산업 발전 관련 사항

이 방안은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면서도 세계 주요국의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극동연방관구 내 실증적 실행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 기한은 2025년 11월 10일로 설정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희토류 및 희귀금속 채굴·생산의 장기 발전 로드맵을 2025년 12월 1일까지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이 로드맵은 채굴·가공·산업화 단계를 포함해 러시아 내 공급망 자립을 목표로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www.kremlin.ru/acts/assignments/orders/78375

##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설정되었다.

### 2. 주택·사회정책 관련 사항

이는 '극동 및 북극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Far Eastern and Arctic Mortgage Program)'의 확대 개편을 명령으로, 이번 개정은 세 가지 주요 방향을 포함했다.

① 2024년 1월 이후 셋째 이상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지원대상에 추가했으며, 이 경우 대출자의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② 신축 다세대주택이 없거나 2동 이하만 건설 중인 지역의 기존 주택(2차 시장) 구매에도 동일한 저금리 담보대출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 경우 건물의 준공연도와 상태를 감안해 주택 품질 기준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③ 극동 및 북극 지역의 국공립·지방 교육기관 근무자 전원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항목에는 직급, 연령, 결혼 여부 등 개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모두 2025년 12월 1일까지 제도 변경을 완료하도록 지시되었다.

### 3. 첨단기술·투자 기반 강화

이는 '보스호드(Voskhod)' 벤처펀드의 활동을 확장하고, 러시아의 기술주권 확보와 혁신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지시다. 해당 조치는 민간 투자회사('Интеррос(Interros)'의 협력으로 추진되며,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프로젝트(National Project on Technological Leadership)와 연계되도록 했다. 또한 극동연방관구와 북극 지역에서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기술리더십 프로젝트에서 규정한 기술 발전지표(target indicators)를 포함하도록 명령했다. 보고 기한은 2026년 2월 1일로 설정되었다.

### 4. 물류·교통 인프라 개발

이 계획은 극동 지역의 복합 물류·운송 허브(multimodal transport-logistics centers)개발로 러시아-중국 접경 교량 인프라 및 북·중·러 3국 연결 교통망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니즈넬레닌스크-퉁장(Nizhnelenninskoye-Tongjiang) 철도교,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Blagoveshchensk-Heihe) 도

##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로교, 투만강((Tumannaya) 교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향)의 건설 및 교통 연계사업이 명시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투만강 교량의 2026년 내 기능 개시를 보장하고, 접속도로 및 주변 교통망을 표준규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 일정은 1차 2026년 2월 1일, 2차 2027년 2월 1일로 지정되었다.

### 5. 산업·기술단지 조성

이는 2030년까지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 지역 육상 구역에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비즈니스파크를 최소 10개 이상 조성하는 명령으로  단지들은 국가 기술 우선분야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SME)과 그 협력망 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해당 조치의 이행 상황은 2026년 2월 1일까지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 6. 신기술 실험 법제 도입

푸틴 대통령은 극동연방관구 내 모든 주(州)에서 신기술 도입을 위한 단일 실험적 법제체계(Unified Experimental Legal Regime)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적용 대상은 무인항공기(드론) 시스템, 디지털 조달 플랫폼(국가·지방정부용 전자상거래 포함), 인공지능(AI), 데이터 유통 및 정보보안 시스템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러시아 북극 지역 육상 구역에도 동일한 법제 실험체계를 도입하도록 명령했다. 모든 조치는 2026년 2월 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안 확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 7. 우대경제체제 및 투자환경 개선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극동연방관구 및 북극 지역 육상 구역에 통합 우대경제제도(Unified Preferential Regime)를 도입하는 것이다. 방법은 기업의 업종별로 세제 감면 및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존 '선도적 사회경제발전구역(ＴＯＰ)'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입법 및 시행 준비는 2026년 8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되었다.

### 8. 북극 물류 및 조선산업 강화

이는 트랜스 북극운송회랑(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의 운영 효율 제

##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고를 위해 두 가지 조치이다.

① 러시아 해양위원회의 참여하에, 컨테이너선·벌크선·LNG 운반선·쇼설선·예인선 등 주요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② 우랄·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 북동항로의 화물 연계 운송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오브(Ob), 예니세이(Yenisei), 레나(Lena) 강 유역의 하천 운송 인프라 활용 방안이 포함되었다. 모든 조치는 2026년 2월 15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명시했다.

### 9. 금융 및 투자 구조 개선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니콜라예프 명칭 극동거래소(JSC Eastern Exchange named after V.V. Nikolaev)'를 기반으로 한 극동 금융센터 설립을 명령했다. 이 금융허브는 극동 지역 내 자본 유입 확대, 기업 주식 상장,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협력하여 규제특례(Regulatory regime)를 마련하고, 해당 센터의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한은 2026년 7월 15일, 책임자는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와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로 지정되었다.

### 10. 지역사회 및 문화 프로젝트

이는 '도시의 얼굴(Лица городов, Faces of Cities)축제에서 제작된 도시 벽화(스트리트 아트)의 물리적 보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아트-가반(Арт-гавань, Art-Harbor)창작 공간을 체사레비치 해안가로 이전하고, 이를 계절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모든 조치는 2025년 11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 11. 극동 발전전략 수립 및 인구정책

이 계획은 2036년까지의 극동연방관구 발전전략(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until 2036)을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해당 전략은 인구, 산업, 교통, 사회 인프라 발전을 통합하는 장기계획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또한 2026년부터 지역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연방예산의 공동재원을

##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통해 지속적 보건 투자 및 인구 자연증가 촉진을 추진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원격·농촌지역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동 진료팀 운영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 12. 행정·법제 정비 및 민관협력

이 명령은 블라디보스토크 도시권을 포함한 극동 일부 대도시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협력 메커니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 연방 차원에서 '도시권(агломерация, agglomeration)개념의 법적 정의와 지방자치 협력체계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국가개발은행(VEB.RF) 에는 국가-민간협력(PPP) 사업의 표준모델과 금융구조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이 표준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재정비·민간투자 유치 사업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지시는 극동 및 북극 지역의 경제·기술·사회 통합발전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첫 종합 명령문으로, 각 항목별로 2025~2027년 단기기한과 2030~2036년 장기목표를 명시했다.

특히 북극 관련 주요 내용은 ① 2030년까지 산업단지 10개 조성, ② 트랜스북극운송회랑 중심의 선박 건조 및 물류체계 강화, ③ 북극 육상 구역 신기술 법제 실험 도입 등으로 구성되었다.

##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 사사카와재단, 그린란드와 북극 협력각서 체결 (2025.11.17.)

2025년 11월 14일, 일본의 사사카와평화재단은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Eqqissinnermut Suliniarfik 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의 제반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협력각서에는 사사카와평화재단 스나미 아츠시(角南篤) 이사장과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비비안 모츠펠트(Vivian Motzfeldt) 외교연구부 장관이 서명했다.

평화센터는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평화, 분쟁해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사카와평화재단과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평화센터를 기반으로 연구, 교육, 대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극 지역에서의 교육·연구와 더불어, 원주민의 포괄적 참여, 평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 추진
- 일본·그린란드 및 기타 관련 주체 간 학술·정책 대화 촉진
-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 인적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OPRI)의 전신인 해양정책연구재단(Ship & Ocean Foundation)은 1990년대부터 북극 이슈에 대응해 왔다. 북극 지역은 지경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시에 환경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관련국 간 대화와 과학 데이터 공유를 포함한 연구협력의 지속이 필수적이다. 사사카와평화재단은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북극항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일본의 북극정책 추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협력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제안한 '평화센터'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구상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외무장관이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치정부와 논의한 과정에서 구상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력은 그간의 논의를 반영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스나미 이사장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해 강조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

글 김주형 전문연구원
jhkim7664@kmi.re.kr

출처: https://www.spf.org/spfnews/pressrelease/20251117.html

##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는 북극권 내에서도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일본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오랜 기간 북극 과학연구 중심의 기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협력은 이러한 역할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일본과 그린란드는 현지 주민과의 협력, 원주민 지식 존중, 차세대 인재 육성, 평화 구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등 다양한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평화센터'를 거점으로 그린란드 주민이 자신의 관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북극 연구의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현지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해 온 민간재단인 사사카와평화재단이 그린란드 측의 협력 요청에 응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 협력은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옵서버
국가 정책

독일

## 독일 해군, 러시아 잠수함 활동 감시 전투기 배치 (2025. 11. 13.)

독일 해군은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 활동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8대를 주문한 가운데, 지난 11월 7일 베를린에 이 중 첫 초계기가 인도되어 현대적인 해상 감시 전투기 편대로 전환되었다. 이번 신규 초계기 도입은 기존 독일의 노후화된 P-3C 오리온 전투기 편대를 대체하기 위해 2021년 시작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총 30억 유로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P-8A 초계기는 널리 사용되는 민간 항공기인 보잉 737-800를 개조하여 해상 및 육상 감시용 레이더, 전자광학 및 적외선 터렛(카메라), 내외부 무장 시스템, 수집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첨단 음향 처리 시스템 등을 장착했다. 독일은 향후 이 초계기에 미국산 MK 54 경어뢰, 폭뢰를 장착할 뿐만 아니라 해상 기뢰와 대함미사일도 탑재할 계획이다. 2028~2029년 사이 8대의 해상초계기를 모두 인도받게 되면, 독일의 장거리 해상 감시 및 대잠전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P-8A 초계기로 독일은 스코틀랜드 로시머스 공군기지, 노르웨이 북부의 P-8 기체 기지,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공군기지를 포함한 동맹국 기지에서의 작전을 지원하여 북극권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0월 독일은 북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는 공동 감시 임무를 위해 P-8A 해상초계기를 영국 공군기지에 파견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방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to help defend against Russian aggression)” 영국 공군 P-8 전투기와 공동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독일은 영국과의 공동 작전 뿐만 아니라 P-8A 해상초계기 작전 전반에 필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전술과 절차 습득을 위해 미 해군, 영국 공군 부대와 함께 훈련을 진행해 오는 등 북극권 해양 안보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합동 훈련 및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출처1: https://united24media.com/latest-news/germany-deploys-first-p-8a-poseidon-to-monitor-russian-submarines-in-the-arctic-13390

출처2: https://news.usni.org/2025/10/28/german-p-8-aircraft-head-to-u-k-air-base-to-track-russian-subs

옵서버
국가 정책

이탈리아

## 1차 국가 북극회의 개최, 정부 북극정책 논의 (2025. 10. 29.)

2025년 10월 29일, 이탈리아 국방고등연구센터-특수대학교(Centre for Advanced Defence Studies – Special University Higher School (CASD/SSUOS))에서 '북극: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도전에서의 방위와 국가 시스템(The Arctic: Defence and the National System in the New Challenges of Global Competition)' 이라는 주제로 제1차 국가 북극 회의(National Arctic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국방부 이사벨라 라우티(Isabella Rauti) 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산업계, 연구기관, 대학 등 주요 국가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북극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국방부의 북극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the Arctic) 공식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육군·해군·공군 전력에 이르는 전담 북극 작전 능력 구축 계획을 추진한다. 조르조 실리(Giorgio Silli) 외무차관은 북극 전환이 글로벌 세력균형의 핵심이며, 환경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는 지역임을 상기시켰다. 외무부 북극 담당 특별대표는 2015년 이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북극 전략 문서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우티 국방 차관은 북극에 초점을 둔 허브 설립 검토를 언급했다. 이 허브는 군·민 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NGO)를 한 틀 안에 결집시켜, 유럽연합(EU) 및 나토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극에서 국익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 및 관계자들은 '제1차 국가 북극 회의'를 통해 북극을 안보·외교·과학·산업이 교차하는 전략 공간으로 재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북극 전략 수립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북극을 러시아의 공세, 중국의 '근북극 국가' 주장,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인한 북부 영역 확장이 맞물리는 지정학적 경쟁지로 인식하고, 기후 위기와 새로운 해상운송로 개방, 경제적 기회의 공간으로 주목하고 있다.

글 정다현 연구원
dhj82@kmi.re.kr

출처1: https://www.edrmagazine.eu/the-arctic-a-distant-neighbour-that-is-getting-closer-the-italian-approach

출처2: https://decode39.com/12225/italy-charts-arctic-strategy-amid-rising-geopolitical-tensions/

# 남극소식

## 중국, 42차 남극탐사시작…빙저호 심층시추 최초 시도 (2025.11.9.)

〈그림〉 2026년 5월 중국 귀환 예정인 쉐룽 2호




자료: Xinhua

글 박예나 전문연구원
yena719@kmi.re.kr

출처: https://polarjournal.net/china-launches-42nd-antarctic-expedition/

11월 1일 중국 극지 쇄빙 연구선 쉐룽(Xuelong)호와 쉐룽2(Xuelong 2)호가 상하이 모항에서 42차 남극 탐사에 출발했다. 이번 탐사에서 중국은 남극 내륙 빙하의 심층 빙저호에 대한 과학 시추를 최초로 실시한다. 원푸하이(Wei Fuhai) 탐사대 대장 겸 과학책임자는 "중국이 개발한 온수 및 용융 시추 시스템을 활용해 3,000m 이상 두께의 빙하를 관통하는 청정 시추와 샘플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탐사대는 남극이 전 지구 기후변화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아문센해(Amundsen Sea)와 로스해(Ross Sea) 등 핵심 지역에서 장기 데이터를 수집한다.

롱웨이(Long Wei) 중국 극지국 부국장은 “남극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이 해양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미래 공동체 건설에 새로운 기여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왕타오(Wang Tao) 부대장 겸 진링(Qinling) 기지 책임자는 “탐사 기간 중 진링 기지의 연구동, 통신망 및 기타 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운영 안전성과 과학 지원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설치된 국산 담수화, 풍력 및 태양광 시스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추가로 시험한다.

진링 기지 건설에서 중국은 풍력, 태양광, 수소 및 저장 에너지의 하이브리드

# 남극소식

시스템을 처음으로 사용해 연간 화석연료 소비를 100톤 이상 줄였다.

이번 탐사에서는 중국이 독자 개발·제조한 6×6륜 구동 설상차 스노우 레오퍼드(Snow Leopard)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남극에서 배치 및 시험된다. 자동 관측 및 위성 원격 탐사, 생태 잠수 부표, 크릴 연구용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도 실전 테스트를 거친다. 또한, 이번 탐사에는 중국 본토 80여 개 기관에서 500명 이상의 대원이 참여하며, 태국, 칠레, 포르투갈,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10여 개국 및 지역의 연구진도 합류해 광범위한 국제 과학 협력을 촉진한다. 롱웨이 부국장은 탐사대가 2026년 5월 임무를 완수하고 중국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여은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3기 장학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본부

# 북극권 국가 - 옵서버 국가: 협력과 경쟁, 그 사이 어딘가에서

## 2025년 북극서클총회의 시작

2025년 북극서클총회(2025 Arctic Circle Assembly, 이하 북극 서클)가 10월 16일(목)~18일(토) 3일에 걸쳐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었다.

북극서클은 매년 아이슬란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북극 국제 포럼으로, 북극권 및 옵서버 국가의 정·관계 인사와 산·학·연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북극의 기후변화, 과학 연구와 발전, 교육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도 아이슬란드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Ólafur Ragnar Grímsson) 전 대통령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사진] 북극서클이 개최되고 있는 레이캬비크 하르파



글 윤여은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3기 장학생
yye2892@gmail.com
yye2892@kopri.re.kr

### 옵서버 국가 참가자의 눈높이에서 본 세계의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 참가자들은 비(非)북극권, 즉 옵서버 국가 참가자들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옵서버 국가의 정책·경제·과학 활동이 현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감지되었다. 그럼에도 북극 의제는 이제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가 된 만큼,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간의 협력과 소통은 사실상 불가결한 동반 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3일 내내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협력(cooperation)과 소통(communication)이었다.

두 이해관계의 협력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총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협력의 경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는 상호이해와 소통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제를 현상뿐 아니라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정책·연구의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상호보완성이다. 현지인은 현장에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국은 과학적 결과물과 기술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이익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구조를 지향한다. 셋째는 지속성이다. 단발성이 아닌 다년의 교류와 정기적인 회합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마치 친구가 되는 것과 같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북극에서 이뤄지는 여러 환경적, 경제적 안건들을 평화적이고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사진] 기후 온난화로 인한 북극 환경 변화에 대한 발표




### 한국의 협력 거점: 친환경 기술로 잇는 환경 보전-기술 발전 연계

북극권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옵서버 국가가 기여할 지점은 분명했다. 현지 생태와 생활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면서, 연구·운영 인프라는 상

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신뢰 가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강점은 비교적 선명했다. 한국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북극 항로를 위한 친환경 선박 설계, 탄소 중립(net-zero)을 넘어 탄소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은 여러 북극권 국가들에게 실무적 매력으로 다가갔다.

이에 따라 ,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제안할 수 있는 두 개의 세션이 열렸다. 첫 번째 'Navigating the new reality: Arctic sea routes and eco-friendly shipbuilding' 세션에서는 최근 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한화오션의 차세대 쇄빙선 건조 계약 체결 사실과 함께, 친환경 이중연료(LNG/MGO) 시스템 도입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 동시에 연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선박 건조 목표를 소개했다. 두 번째 'Global innovative industrial zone and cooperation in Korea' 세션에서는 포항시의 이차전지·수소에너지 등의 주력 기술과 아이슬란드의 청정에너지 생산 역량을 접목하여 '전기어선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영일만항을 친환경 물류·산업의 허브로 삼아 새로운 북극 항로 개척을 추진하는 '골든 이니셔티브(GOLDEN Initiative)' 전략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다양한 기술적 강점이 북극권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Connecting the poles: lessons from early carrer science network' 세션에서는 한국의 극지 연구 학생들과 한-북극권 연구 협력 체계 속에서 성장 중인 국내외 학생 연구자들이 참여해 초기 경력 연구자 네트워크 경험과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북극 현장 경험이 있는 두 학생 연구자의 발표는 연구 내용과 필요성,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한국의 북극 연구에 대한 관심과 포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이처럼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제안하고 구현 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한국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옵서버 국가 중 하나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북극 항로 개척 및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 정책 세션



[사진] 글로벌 혁신산업 지대 및 협력 세션




## 원주민의 교육 단절과 교육 혁신·교류의 필요성

이번 총회에서 정부 인사 및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북극 토착 원주민들도 다양한 세션에서 목소리를 냈다. 환경 변화의 체감, 거주지와 식량을 확보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어려움을 공유하였고, 무엇이 자신들의 삶을 해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Living Knowledge: Indigenous Arctic pedagogies from land to sea'세션에서 들을 수 있었다. 패널들은 북극 원주민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도시로 대학을 나온 학생들과 아직 북극에서 순록을 기르며 살고 있는 목동이었다. 그들은 북극 원주민들이 국제 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을 '언어의 단절'로 꼽았다. 사용 인구가 적은 언어의 한계와 영어 교육의 어려움은 소통 범위를 좁히고 지식의 순환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화상 통화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들은 북극 토착 원주민들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의 필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교육 접근성이 좋은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교육은 그저 미래를 위해 감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본 교육의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 그들은 영어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세계인들이 영어 소통이 어려운 민족들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이 삶의 터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북극서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가 'cooperation'와 'communication'인 만큼, 이는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며, 이제는 우리가 진정성 있는 협력과 소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사진] 북극 토착 원주민들의 삶과 교육 환경 세션




[사진] 직접 사냥하여 얻은 동물의 가죽을 설명하는 북극 토착 원주민



###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옵서버 국가 참가자의 입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대목은, 첫 번째 당사자가 아닌 만큼 조심스러움과 적극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북극의 환경 변화는 전 세계에 파급효과를 갖는 만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많은 의제에서 원주민을 포함한 북극권 주민의 감정과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실제로 돕는 것, 그리고 말뿐인 협력이 아닌 상생의 실천을 지속하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보탤지에 대한 지속적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금까지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외교적·과학적 신뢰를 쌓아왔다. 앞으로도 이 기반을 꾸준히 유지·확대하며, 친환경기술을 매개로 환경보전과 과학·산업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깊이를 더해갈 필요가 있다. 작은 파일럿이라도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남기며 축적해 나간다면, 다음 총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 모델로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3기 장학생

국립부경대학교
구환경시스템과학부
극지연구소
해양대기연구본부

# Arctic Circle Assembly 후기-모델 밖에서 북극을 만나다:

## 북극 서클 총회를 다녀오면서

북극 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나는 꽤나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다. 북극권의 정책·사회·문화를 주로 다루는 자리라니, 기후과학을 공부하는 나와는 어딘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연구실에서 모델로 북극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것만이 북극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것만이 곧 내가 북극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북극을 '모델 속 북극'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마주한 북극은 전혀 달랐다. 단지 모니터 속에서 계산된 북극보다 훨씬 넓고 복합적인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북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학자에만 그치지 않았다. 정책 결정자, 원주민 대표, 기술 전문가, 국제기구 실무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북극의 변화와 그 의미를 각자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극의 일상과 생존 문제, 문화적 차이와 변화, 정책과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누군가는 해빙 감소로 가져올 기후 위기와 전통문화의 붕괴를 경고하였고, 또 누군가는 북극 항로가 가져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그렸다. 서로의 시각은 달랐지만,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극을 어떻게 함께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 협력을 구축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교차하는 현장을 지켜보며, 나는 비로소 북극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연구실의 모니터 앞에서는 결코 북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북극을 둘러싼 논의에는 과학적 판단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 문화적 변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었다. 북극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정임을 실감했다. 그렇기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번 북극 서클 총회에서 내가 발표한 주제와 이어졌다. 나는 이번 발표에서 많은 과학 및 정책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Coupled Model Intercomparision

글 박정현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3기 장학생
james70712@gmail.com
james70712@kopri.re.kr

Project 6(CMIP6)가 북극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더 신뢰할 수 있는 모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다.

**“Connecting the Poles - Lessons from Early Career Science Network” 세션 발표 : CMIP6는 북극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번 북극 서클 총회에서 나는 위 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해, CMIP6 모델이 북극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현장에서 들었던 다양한 논의는 오히려 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CMIP6는 여러 기관에서 제작한 지구시스템모델 결과를 공통 시나리오로 비교한 집합체다. IPCC 보고서와 국가 기후전략 수립의 핵심 자료로 쓰이며, 북극 정책과 항로 분석에도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실제로 많은 CMIP6 모델은 북극을 일관되게 재현하지 못한다. 해빙은 얇게 모의하면서도 해수면 수온은 차갑게 나타나고, 강물 유입량은 과대 모의되지만 해양 염분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등 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결과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계산 오차라기보다는, 모델의 주요 설계가 중·저위도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다.

물론 완벽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CMIP5에서 CMIP6로 넘어오며 모델 수는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더 많은 현실적 요소에 대해 모의도 가능해졌지만, 불확실성 역시 함께 커졌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 현장 판단에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극처럼 변화가 빠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는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이번 세션에서 들려온 이야기들도 인상 깊었다.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 청년 연구자들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서로 다른 배경, 지식을 존중하며 함께 보자는 ‘two-eyed seeing’의 개념도 소개되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북극 연구는 결국 혼자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거대한 공동 작업이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와 닿았다.

##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마무리

이번 북극 서클 총회는 단순히 학회 참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북극은 더 이상 내가 연구실에서 계산하던 하나의 기후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과 경제, 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촘촘히 얽혀 있는 '현실의 공간'이었다. 북극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델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 더 선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북극을 보다 사실적으로 모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 자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북극처럼 변화가 빠르고, 관측이 부족한 지역에서 정책 결정자와 현장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극 서클 총회는 기후모델이 결국 사람을 위한 과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었다. 기후 시나리오는 공동체의 생존, 국가 정책, 그리고 미래 세대의 선택과도 닿아 있다. 아이슬란드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가'를 다시 떠올렸고, 지금은 그 답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다. 이번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나는 더 신뢰받을 수 있고,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북극 서클 총회는 그 길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여정이었다.

# 북극과 사람

## 변화하는 시대, 북극 원주민 여성의 변화

글 김주형 전문연구원
jhkim7664@kmi.re.kr

### ▮ 들어가며

- 수천 년 동안 북극에서 고유한 삶의 방식을 이어온 원주민은 기후 변화, 산업 개발,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급격한 전환과 적응의 국면에 놓여 있다. 북극 원주민 공동체에서 여성은 단순한 가정의 일원을 넘어, 생계활동, 전통지식의 전승,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통적으로 북극의 사냥, 어업, 유목 등은 남성 중심의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기후 변화, 자원 개발,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이들의 존재와 역할은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북극 원주민 여성의 역할 변화,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북극 공동체 내 여성의 역할

- 북극 공동체에서 여성은 단순한 가정의 일원을 넘어, 생계 활동, 전통지식의 전승,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통적으로 사냥, 어업, 유목 등은 남성 중심의 활동이었지만, 여성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공·저장·공유 과정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식량 자급 및 사회 문화적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여성들이 만든 의복(예: 동물 가죽으로 만든 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은 생존용품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 전승의 아이템이었다.

- 여성들은 또한 공동체 내부에서 문화·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북극 원주민 사회에서 식량을 같이 나누고, 세대간 지식을 전수하며, 의례나 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데 여성의 참여가 없다면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활동은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 속에서도 생존하고 적응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자원개발,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 원주민 여성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들은 전통지식에 현대적 접근을 결합하여 대대로 이어져 온 식량자원의 보호, 지역 식문화의 유지, 식문화 지식의 세대 간 전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식량 확보를 넘어, 전통 식문화 교육과 지식 전승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 식단이 공동체의 건강·치유·정체성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식문화 보전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가 식량안보, 건강, 주거, 안전 측면에서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음에도,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적응 전략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원주민 여성의 거버넌스 참여 논의 확대

- 북극이사회와 각국의 북극 정책 논의에서 젠더와 다양성은 점점 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주민 여성의 관점과 참여 역시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젠더는 기후·환경·안보·경제·건강 등 북극 의제 전반에 관통하는 주요 의제라고 강조하며, 남녀의 이분법적 구별을 넘어선 다양한 젠더 경험을 정책·법제·예산 과정에 통합하는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원주민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제도적 공간을 넓히며, 이들이 북극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이누이트를 대표하는 Inuit Circumpolar Council(ICC)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IPCC, IM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누이트의 권리와 기후·해양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ICC가 최근 개최한 이누이트 여성 총회('Inuit Women's Summit)'에서는, 기후변화·언어·건강·폭력·자원개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이누이트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집약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는 원주민 여성의 권리와 기후적응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서로 평가되며, 여성의 집단적 의견을 정책·협상 의제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적 의미가 크다.

- 캐나다의 「Arctic and Northern Policy Framework」는 정책의 목표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아동·소수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원주민 커뮤니티의 건강·안전, 그리고 다양한 위험요인(예: 폭력, 환경오염)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북극 정책 문서에서 여성을 독립된 이해당사자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포함하려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북극 원주민 여성은 학계·시민사회·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Women of the Arctic(WoA)와 같은 네트워크는 학계 · 예술계 ·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여성을 연결하여, 북극에서의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가시화하고 연구·정책·스토리텔링을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WoA는 북극 여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비즈니스·학계 논의 공간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대

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기반 활동은 여성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도권 정책 논의에 전달하는 중요한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arcticwwf.org/newsroom/features/women-of-the-arctic-and-the-importance-of-gender-in-the-arctic/
https://indigenousclimatehub.ca/2024/10/the-role-of-indigenous-women-in-climate-resilience-and-adaptation
https://arcticreview.no/index.php/arctic/article/view/901/2109
https://www.gender-nr-peace.org/news/show/NewsItem-6202
https://library.arcticportal.org/1998/1/Eallu_2018_for%20Web.pdf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c1fae3bd-7e08-4985-b406-e103087b2bb5
https://arctic-council.org/explore/topics/arctic-peoples/gender
https://arcticgenderequality.network/phase-3/pan-arctic-report/themes#theme-ch3
https://www.inuitcircumpolar.com/press-releases/inuit-womens-summit-concludes-with-a-historic-declaration
https://www.rcaanc-cirnac.gc.ca/eng/1562867415721/1562867459588
https://www.arcticwwf.org/newsroom/features/women-of-the-arctic-and-the-importance-of-gender-in-the-arctic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

